

주님을 찬양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며, 영의 세계를 밝히 알도록 도와준다.

하나님 선물, 오로라 빛 형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로라 빛에 담긴 형형색색 아름다운 형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

주님은 축복의 통로

성실과 섬김으로 살아가니 축복이 넘친다는 유미연 집사와 하나님 은혜로 두 아이 엄마가 된 일본 아마사타 이쿠미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534호 2012년 5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이스라엘

‘2012 찬양페스티벌’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이후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성령이 주는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게 됐다.



▲ 세계 곳곳을 다니며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는 크리스탈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



▲ 2011년 12월 크리스탈포럼 3주년 기념 행사



▲ 2011년 10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주년 기념 집회 (강사_ 세계적인 부흥사 모리스 세를르 목사)

▲ 지난 5월 19일 열린 ‘2012 찬양 페스티벌’(①~③)과 우리 교회 열정팀 공연(②)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 ‘2012 찬양 페스티벌’이 지난 5월 19일, 라트룬 미니 이스라엘에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유명 찬양팀들이 참석한 가운데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생중계 됐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열정팀과 손영락 집사가 초청받아 참석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들은 히브리어, 러시아어, 링갈라어 3개 언어로 준비한 찬양과 무용을 선보였다. 아름다운 의상과 성령의 감동으로 넘치

는 공연을 관람한 참석자들은 “천국을 보는 듯했다”고 말했고, “찬양 발음이 매우 정확해 흡수 녹음한 것을 틀어 놓은 것이 아니냐”며 놀라워했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 현지 교회가 하나 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위축돼 있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사방이 트인 야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모한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2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며

따르는 권능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과 섭리를 깨우치고, 이스라엘 교회 성장과 목회자 연합을 위해 마음이 뜨겁게 모여져 ‘크리스탈포럼’이라는 연합단체를 결성하게 됐다.

그 뒤,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주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이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 담대히 선포했다.

크리스탈포럼 소속 목회자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해외에서도 집회를 인도했다. 이를 통해 회개 역사가 나타나며 질병을 치료받고 삶이 새롭게 변화했다는 간증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깨어라 이스라엘!』,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 등 여러 책자가 보급돼 인기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결 복음을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만민국제신학교(MIS) 과정이 텔아비브와 아쉬도트, 예루살렘에서 진행돼 성도들은 말씀무장을 통해 영적 믿음

이 성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사이프러스, 카자흐스탄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TBN 러시아, CNL, 홀리갯 TV, 로드로이드 등 방송을 통해 매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환자 기도를 받을 수 있다.

미라 램하리 성도는 “TBN 러시아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건강을 되찾았고 술과 마약에 빠져있던 둘째 아들이 변화됐다”고 간증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러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 안에 가득했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3천 명이나 회개시키고, 앓은뱅이를 일으키는 등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

요한복음 14:16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고, 요한복음 16:7에는 “...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했지요.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이며, 주님과 가까이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겠

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를 잊지 않으셨고, 인생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인생들과 다시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자 이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保惠師)’란 성도를 보호하고 돕는 ‘성령’을 지칭하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 주셨지만, 인생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2. 성령이 하시는 일

1)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15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반대인 육이며, 비진리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흠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흠은 다른 물질이 섞이면 쉽게 토질이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 흠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점점 더 육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육의 세상에서 많은 비진리와 죄악을 보고, 듣고, 접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상 유혹과 환락에 빠지기 쉬운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선하게 살기가 쉽

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비진리인 육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시 103:14).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 주실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면 탄식과 곤고함을 느끼게 해 돌아키게 하시지요.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아가 불같이 기도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죄를 버리고 충성하게 하심으로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끄시지요.

2)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머니와 같이 자상하신 성령은 세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세상 오락을 끊고자 노력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요. 물질, 건강의 축복 등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지요.

혹여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항상 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지요.

고린도후서 6:18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들이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심을 늘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비진리를 벗고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더 친밀해지시지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성령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시지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

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므로(고전 2:10) 우리가 하나님 뜻을 헤아려 순종하게 하십니다.

3) 영의 세계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가 전부 아님을 알려 주십니다. 기사와 표적, 희한한 능, 기이한 일 등은 모두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지요.

이처럼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체며 능력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믿을 수 있었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본 듯, 만진 듯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고 믿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영의 세계가 확실히 믿어진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48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며, 이미 손상된 신경이나 퇴화된 뼈들이 소생돼 걷고 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즈, 백혈병, 암, 아토피성 피부염 등 질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 종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마다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순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비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일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리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택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근본의 빛을 느낄 수 있는 오로라 빛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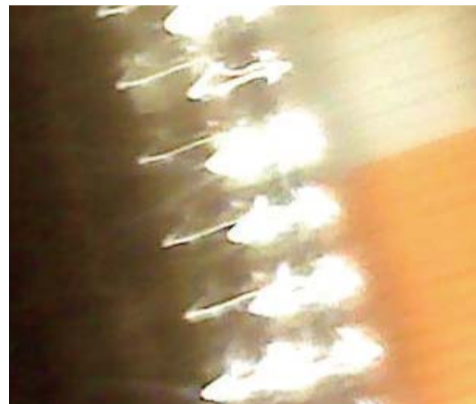


우리 교회에는 치료와 응답은 물론 갖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간증이 날마다 넘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촬영되는 오로라 빛 형상이다.

2011년 5월 20일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형형색색으로 펼쳐주셨다.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빛에 담긴 갖가지 형상을 촬영하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느끼며 믿음과 천국 소망이 더해졌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결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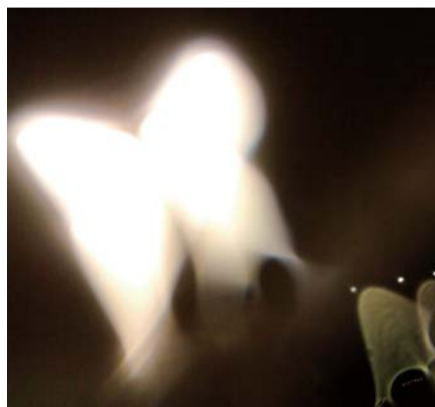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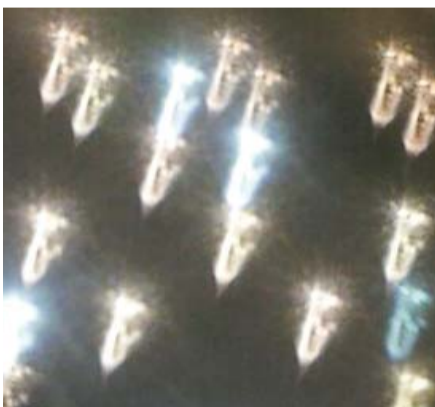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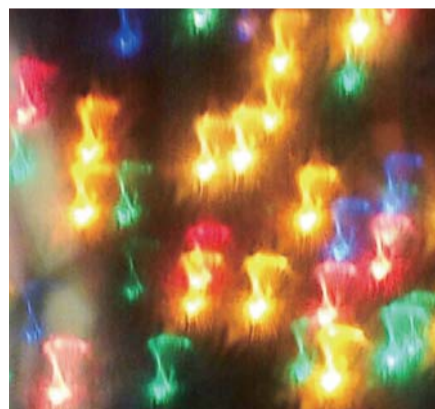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로라 빛을 허락하신 지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도들이 촬영한 오로라 빛 형상들 중 일부를 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1: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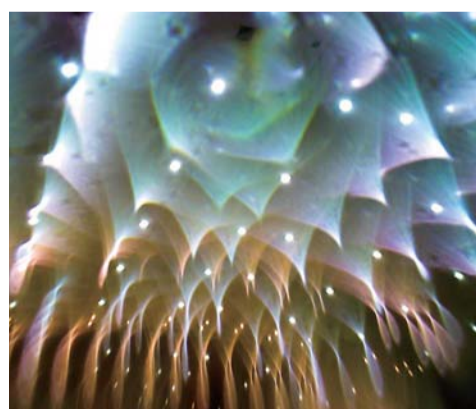
*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4:3)



- ① 물고기
- ② 팬관
- ③ 꽃
- ④ 바이올린
- ⑤ 하트
- ⑥ 새
- ⑦ 8분음표
- ⑧ 트럼펫
- ⑨ 물고기
- ⑩ 나비
- ⑪ 반지
- ⑫ 꽃
- ⑬ 하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가정의 달 5월

“은 세상에 외치는 방송, GCN!
생명의 말씀과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GCN에서 만나보세요!”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15-19
- 공부 잘하는 비결 2-6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10-14
- 3차 영혼육 1,2



이수진 목사의 TV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2,7,8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내 안에 행복, 기쁨, 감사 넘쳐요”

유미연 집사

삼성그룹 제일모직 책임연구원(과장)

하나님 은혜로 대기업 공채에 합격한 후 7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가 경기도 오산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제게는 출퇴근을 하는 데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먼 거리였지요. 이직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직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0년 9월 초, 삼성그룹 제일모직 전자재료 부문 경력직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이라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게다가 경력 발표 자료 준비 기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아 포기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도전하게 됐습니다. 발표 자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뼈대를 떠올려 주셔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요.

면접 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잘 보세요”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과연 면접 당일에 전혀 떨지 않고 발표도 잘했습니다. 그해 12월 1일, 마침내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아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압박감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감사와 기도로 이겨 나갔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기, 대화 중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상대 의견에 맞춰주기, 생일에 작은 선물하고 안부 묻기 등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신뢰와 유대감이 생겨 동료나 후배들에게 상담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를 힘들게 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사에게도 진리 안에서 마음 다해 순종했더니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도구로 쓰이고자 결단하고 행하니

2011년 3월, 저는 여동생(유지연 자매)과 함께 당회장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제 마음은 주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져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영혼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지요.

주님 도구로 귀히 쓰임받기 위한 비전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6월에 열린 ‘특별 은사집회’를 통해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10년 된 심한 생리통을 치료받았지요.



11월에는 대학원 진학, 책임연구원 승진 시험을 대비한 e-Test(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및 정보활용능력 평가시험)와 토익(Toeic)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제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지요. 그 결과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에너지자원(화학공학)학과에 합격했으며, 회사에서도 승진 가산점을 얻고 인사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승진과 함께 축복이 넘쳐

2012년 2월 29일, 동료 연구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책임 연구원님, 승진 축하드려요.” 승진 발표가 나자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팀 모두가 승진하는 기쁨을 나누고 연봉도 인상되는 축복도 함께 받았지요.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여기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더니 지난 해 2월에는 교회에서 주는 우수기관장 상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소망하며 기도한 지난날들이 생각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제 삶이 너무 기대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도구로 귀히 쓰일 그 날을 사모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야마시타 이쿠미 성도 (일본 이다만민교회)

“하나님 권능으로 불임을 치료받아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저는 남편(야마시타 유사쿠)과 5년 열애 끝에 2009년 7월 4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남편과 저는 빨리 아이를 갖기 원했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한 저는 몸이 흡사 젓가락처럼 말랐고 허약했으며 생리불순까지 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전도로 2005년부터 이다만민교회를 다녔지요. 이곳에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권

능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됐기에 임신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임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2009년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희 부부는 이다만민교회에서 열린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했습니다. 담임 유승길 목사님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요. 저희 부부는 지난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 후 저는 4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

고 임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임신 기간 중에 상대방 과실로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지요.

2010년 7월 11일, 그토록 바랐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품안에서 품지락거리는 작은 생명이 그저 신기했지요.

요즘 생후 23개월 된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지금 제 뱃속에는 8개월 된 둘째 아이까지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성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2층) ☎033)261-4217, 010-7300-42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